

# OECD, 2013년도 인도 경제성장률 당초 예상보다 하향 전망

(2013. 5. 30)

뉴델리사무소

## □ OECD, 2013년도 인도 GDP 성장률 하향 전망

○ OECD는 인도의 2013년도 GDP 성장률을 당초 5.7% 전망했으나, 인도의 인플레이 및 경상수지적자 증대 등으로 5.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OECD는 최근 인도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탈피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자료에 따르면 인도정부의 누적되고 있는 경상수지적자의 부담과 이에 따른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부담 등으로 인도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인도의 거시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성장률	10.5	6.3	3.7	5.7	6.6
소비자물가 상승률	10.4	8.4	9.8	7.8	6.9
재정적자 (GDP대비)	-6.8	-8.1	-7.5	-6.9	-6.5
경상수지적자 (GDP대비)	-2.7	-4.2	-4.9	-4.7	-4.2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3

## □ 인도 정부, 최악의 경제위기는 극복하여 호전세 전망

- 한편, 인도 맘모한 싱 총리는 최근 일본을 방문(5월 28일-30일)하여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의 2013년 경제성장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지난 10년간 최악의 경제성장을 보였던 2011-12회계년도 5%성장을 뒤로 하고 수상직속의 경제조정위(PMEAC : Prime Minister's Economic Advisory Council)에서 과감한 경제개혁조치를 통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것임을 피력함.
- 하지만 OECD는 인도가 경상수지 적자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안정 및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9%대의 물가 상승율을 연말까지는 7.8%, 그리고 내년에는 6.9%로 축소해야 하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내년까지는 6.5%수준으로 하락해야 한다고 밝힘.

자료원 : Business Standard 등 언론 종합